

■ 주요 뉴스: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, 둔화 속도 및 최종금리 영향 등에 관심

- 연준 부의장, 금리인상에도 가계와 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성 유지
- ECB 라가르드 총재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
-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, 과도한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설 계획

■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관련 시각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3.4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15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1.5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 기대 등으로 상승폭 축소
유로화가치는 0.1% 하락. 엔화는 0.7% 절상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종금리의 예상 상회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9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2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1/4일	10/28일	전주말대비			11/4일	10/28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3,770.6	3,901.1	-3.35%	국채 금리 10y	미국	4.16%	4.01%	15bp
	유럽	416.98	410.76	1.51%		독일	2.30%	2.10%	19bp
	중국	3,070.8	2,915.9	5.31%		영국	3.54%	3.48%	6bp
	일본	27,200	27,105	0.35%		CDS 5y	한국	73bp	66bp
	한국	2,348.4	2,268.4	3.53%	위험 지표	중국	102bp	120bp	-18bp
	달러지수	110.88	110.75	0.11%		EMBI+	438	439	-1bp
환율	유로화	0.9957	0.9965	-0.08%		VIX	24.55	25.75	-4.66%
	엔화	146.62	147.60	0.67%		WTI유	92.61	87.90	5.36%
	위안화	7.1851	7.2524	0.94%	원자재	구리	368.7	342.9	7.51%
	원화	1,419.2	1,421.5	0.16%		금	1,681.9	1,644.9	2.2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, 둔화 속도 및 최종금리 영향 등에 관심

- 10월 미국 소비자물가(CPI)가 11/10일 공개되는데, 블룸버그에서는 연간 상승률이 7.9%를 나타내 전월(8.2%) 대비 소폭 하락하는 반면, 월간 상승률은 0.7%를 기록하여 전월(0.4%)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
- 근원 CPI의 경우 연간 상승률과 월간 상승률이 각각 6.5%, 0.5%를 기록하여 모두 전월(6.6%, 0.6%) 대비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. 다만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(2.0%) 크게 상회
- 10월 CPI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된다면 이는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들에게 긍정적인 뉴스(Bloomberg Economics).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둔화 속도가 느리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최종금리가 5.0%를 넘을 것이라는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
- 한편 인플레이션은 11/8일 시행될 중간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.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. 상원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
- 만일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 분단 정부(divided government)가 탄생하면,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지출 정책 시행이 어렵거나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는 등 향후 2년 동안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. 일부에서는 정부 사업이 중단되면 전반적으로 기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부의장, 금리인상에도 가계와 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성 유지

-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금융여건이 급격하게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가계, 은행, 기업들은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발언. 다만 주요국의 동시다발적 통화긴축, 러-우 전쟁, 높은 인플레이션 등은 경제 취약성을 증폭시킨다고 평가
-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, 기업들의 대출은 GDP 대비 높은 수준이나 금융비용 상환 능력 역시 향상되었다고 진단. 국채시장의 유동성 여건은 최근 악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

■ ECB 라가르드 총재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

- 경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. 향후 약한 수준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나, 그것만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
- 데 퀴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상회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임금-물가 상승의 악순환 위험도 높인다고 경고. 공급 병목 개선 징후가 있으나, 에너지 충격은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것으로 분석

■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, 과도한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설 계획

-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측면에서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발언. 아울러 국내 인플레이션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첨언
- 캐서린 맨 위원은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,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다고 언급.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된다면, 더욱 강력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부연

■ 중국 주석,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

- 시진핑 주석은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촉구하며 하이난 자유무역지역 항구와 같은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 피력.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WTO의 개혁에도 깊이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

■ 호주 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. 성장률 전망은 하향

- 임금상승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추정. 한편 연간 물가상승률은 '24년 말에도 3.2%를 기록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보스턴 연은 및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강연, 9월 소비자신용 잔액
- 유로존 11월 Sentix 투자신뢰지수, 독일 9월 산업생산, 중국 10월 수출입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각국 중앙은행의 연준 통화긴축 추종, 상이한 경제여건으로 지속은 기대난 - 블룸버그 (Following the Fed Goes Out of Fashion in 'Messier' World Economy)

- 금년 다수의 중앙은행이 동시에 통화긴축을 시행하면서 통화정책 동조화 현상이 진행. 다만 최근 이러한 현상에 균열 조짐이 발생. 연준 인사들은 최종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, 영국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긴축의 강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신호 발신
- 영국, 캐나다 등 민간부채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국가는 금리인상에 더 민감해 미국이 경기하강에 돌입하기 전에 경기침체에 직면할 우려. 이에 공격적 금리인상을 철회하면서 연준과 통화정책 동조화 관계는 악화될 전망

■ 미국의 국가자본주의, 혁신 등 여러 이점 불구 한계에 노출 - The Economist (How best to bring back manufacturing)

- 반도체법,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에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제공이 증가. 아울러 반도체, 군사 등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안보도 더욱 강력하게 확립
- 또한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. 리쇼어링으로 생산시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경우 R&D 단지와 인접하면서 더 많은 특허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
-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생태계에서 국가 주도 육성은 한계가 존재. 과거 일본도 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으로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환이 지연. 이에 따라 기술이민 장려 등 여타 정책들을 통해 보완할 필요

■ 유럽의 고물가, 구조적 요인 등으로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 - The Economist (Even recession may not bring down Europe's inflation)

- 최근 ECB가 2회 연속 0.75%p 금리 인상 등 긴축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, 대규모 부양책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향후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
- 그러나 겨울철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가격상승 우려가 여전. 또한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60% 이상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단체 임금협약을 맺고 있어 향후 갱신에 따른 임금의 추가 상승 압력이 높은 편
- 이외에 이탈리아, 독일 등에서는 고령화가 심각해 향후에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

■ **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(IRA), 유럽과의 무역 갈등 심화될 우려 - Financial Times**
(EU accuses US of breaking WTO rules with green energy incentives)

-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세계무역기구(WTO)가 정한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. 또한 법안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미국을 포함, 주요 교역국에 경제적 피해 및 주요 핵심기술 관련 보조금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
- 이에 프랑스 등 일부 역내 국가들은 보복적 대응을 요구. 반면 유럽 무역위원회는 법안의 보조금 및 세금감면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며 협상의지를 표명. IRA 시행 관련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법안 수정 관련 언급을 자제.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의 법안 수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
■ **미국 중간선거, 공화당 승리 시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 - WSJ**

(Republican Opposition to Helping Ukraine Grows, WSJ Poll Finds)

- 러우 전쟁이 9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반대.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0%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, 이는 지난 3월 보다 6%p 상승한 결과. 특히 동일한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대 응답률은 48%로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
- 다만 아직까지 다수의 국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지(찬성 57%, 반대 37%). 최근 우크라이나 총리가 미국에 내년 매월 15억달러의 추가 경제 원조를 요청한 가운데,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 기반이 약화될 소지

■ **연준의 고물가 대책, 경제 여건 변화 따른 새로운 방법 검토할 필요 - Financial Times**

(It's still Ben Bernanke and Milton Friedman's Fed)

■ **미국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, 통화긴축과 금융시장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- WSJ**

(Raising Money on Wall Street Hasn't Been This Hard in a Decade)

■ **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,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영향은 제한적 - 블룸버그**

(The World May Need That Russian Oil Output Cut After All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